

고난도 한 문항이 등급 바꾼다

■ 수능 50여일 앞 마무리 전략

실전 문제 풀이로 시간 안배 훈련

시사·교과서 연계 학습 논술 대비

200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일 실시된 모의평가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고난도 문항을 고루 분포시켜 등급의 변별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입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고난도 한 문항 차이로 등급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부 실질변영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어도 생각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수능의 한두 문제가 입시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 수능 마무리 전략을 살펴본다.

◇자연계열이면서 수리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등급 올리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수능이 이번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계속 수학 I 문항이 어렵게 출제돼 '나'형이 '가'형보다 힘들 경우, '가'형에서 '나'형으로 전환한 중위권 학생들은 등급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 방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연 계열이면서 수리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비슷한 지원권에 속하면서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한 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사 문제와 교과서 연계 학습을 하라. 시사 문제는 수능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하

게 다루어져 왔는데, 특히 2008 수능만이 아니라 논술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탈레반의 인질 사태와 관련해 윤리 교과와 '종교의 다양성', 세계사 교과와 '이슬람 문명', 정치 교과와 '국제 관계'부분을 눈여겨보는 등 교과 지식과 연계해 시사 문제를 정리해 뒤야 한다. 시사 문제와 교과서 연계 학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논술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다.

◇최소 3개년 평가원, 교육청 주관 기출문제를 반드시 숙지하라.

기출문제만큼 모범 문제는 없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출제유형도 익힐 수 있고,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한 시간 안배 훈련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학습해도 결코 늦지 않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한다.

◇오답노트를 만들어 본인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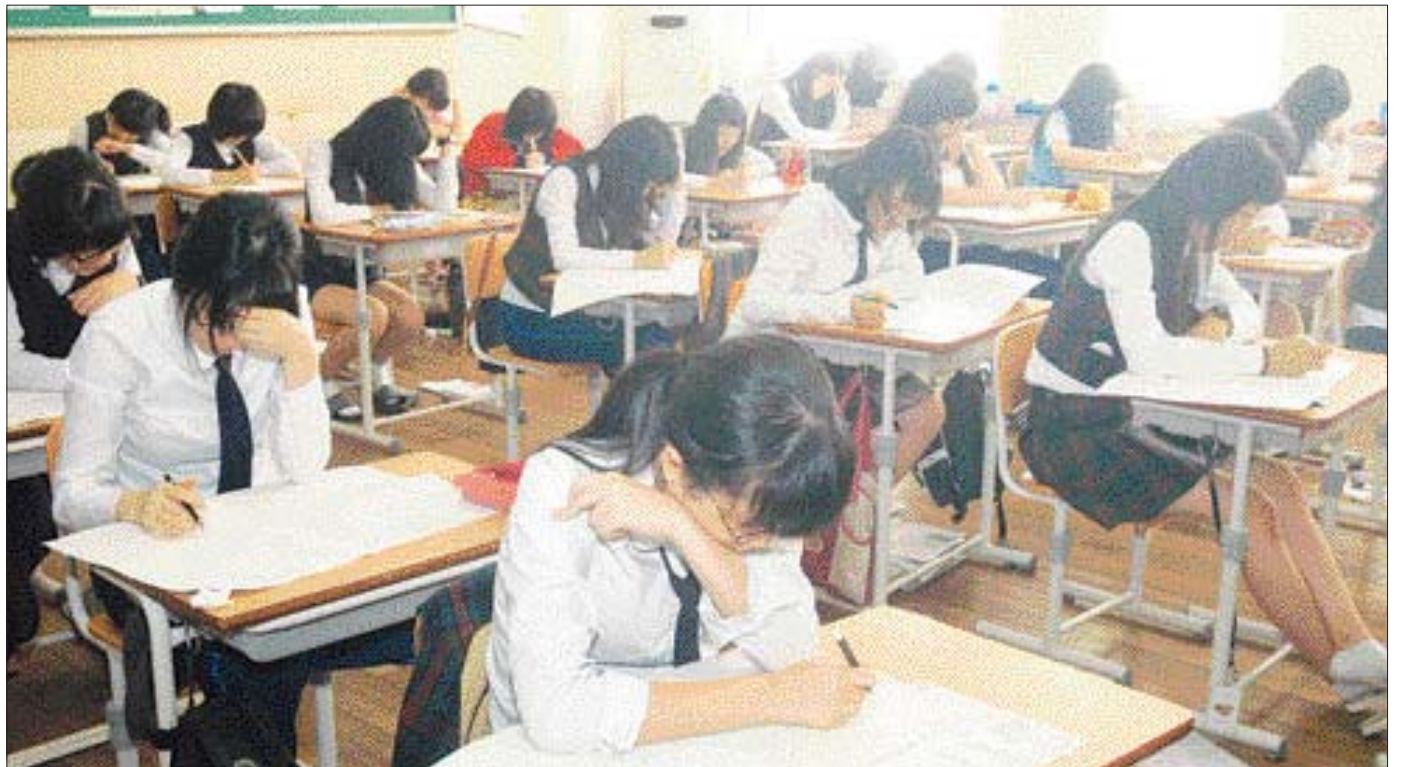
실전 시험에서 오답틀을 분석해보면, 학생들은 틀린 문제에서 또 틀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으려면 오답노트 작성만큼 좋은 학습법은 없다. 특히 등급제 수능에서는 한두 문제의 실수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오답노트로 취약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EBS 방송 교재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자.

EBS 방송 교재의 반영 비율은 과목별로 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반영 정도가 극히 미미해 EBS 방송 교재로 공부한 수험생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했다고는 볼 수 없다. 또 반영된 내용도 대부분 교과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일반 교재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어서, 그 영향력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BS 방송교재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언어 영역에서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교과서와 EBS 교재에 공통으로 실린 작품과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작품을 눈여겨봐 둘 필요가 있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특이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답하는 식의 공부가 효과적일 수 있다.

◇대학별 고사 준비도 병행하라.

수능이 평이하게 출제돼 중상위권의 동점자가 많이 생길 경우, 대학별 고사에서 최종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는 논술고사 실시 대학과 반영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주요 대학들이 이번 수시 2학기 대입 전형에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에 이르기까지(최종 단계 기준) 논술고사 성적 반영할 계획이며, 평균적으로 40~60% 선에서 논술 성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원 대학의 논술고사 일정을 숙지해 두고, 내신과 수능, 논술고사 대비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과서를 통해 독해력과 이해력을 키우고 하루 10~20분 신문 기사를 꼼꼼히 읽고 사회 현상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0일 전국 16개 시·도 소재 고등학교 1,2학년 110만명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5개 영역에서 수능시험 형태로 시행된 이번 학력평가에서 전남여고 학생들이 문제를 푸느라 골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교수·학생들 국제학술회의 참가

한국철학 세계에 알린다

철학과 김상봉 교수 등

전남대 교수와 학생들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 우리나라의 철학과 사상을 널리 알린다.

전남대는 BK21철학교육사업단의 지원으로 김상봉(48·서양철학)교수와 정응환(39·동양철학) 포닥연구원, 양진호(36)·강규여(32) 박사과정 학생들이 20일부터 사흘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서 열리는 '제7회 상호문화철학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 미시오 연구소가 주최하고 아르헨티나 국립 헤네랄 사르미엔토 대학이 주관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김상봉 교수와 양진호 박사과정 학생은 '저항하는 인간—20세기 한국 철학의 인간상'이라는 주제로 철학자 함석헌의 삶과 사상을 소개한다.

또 20세기 한국 철학이 제시하는 인간

상을 '저항하는 인간'(Homo resistens)으로 제시하고, 동학농민항쟁으로부터 5·18민주화쟁까지 한국 근대사의 굴곡 속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인간혁명의 실천철학을 알린다.

정응환 포닥연구원과 강규여 박사과정 학생은 '한국 유교와 인간들'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상호주관적 인간관에 바탕을 둔 한국 유학의 재정립을 시도한다.

올해로 7회째 열리는 '상호문화철학 국제학술회의'는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미, 유럽 등지의 철학자들이 모여 각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철학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인식하고 경제·환경·성·인종 등 현대 사회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추석에도 공부는 쭉~

온라인 교육업체 특강 잇따라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5일 동안의 추석 연휴를 겨냥해 추석 특강을 잇따라 선보인다.

비타에듀(www.vitaedu.com)는 '비타 결의 10일간 추석 연휴 학습계획표'와 함께 '수능 완전정복-백절불굴 추석특강'을 마련했다. 21~30일 열흘 동안 홈페이지에 개설된 동영상 강의 가운데 3개 강좌를 3만9천원에 제공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22~26일에는 '집중 공략! 단기완성 강좌'의 수강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 준다.

유웨이에듀(www.uwayedu.com)는 24일 까지 '화려한 추석 연휴 특강'을 제공한다.

짧은 시간에 개념을 마스터할 수 있는 '등급 역전을 위한 필수 개념특강'과 '실전 감각 극대화를 위한 문제풀이 특강'으로 구성됐다. 패키지를 구입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37년간 유웨이중앙모의고사를 만든 최정애 연구진이 엄선한 문항이 담긴 '필책 300' 교재도 제공한다.

이투스(www.etoos.com)는 21~30일 '마지막 스피트를 올려라 추석특강!'을 마련한다. 핵심 개념 정리와 심화개념 끝내기, 문제 풀이 등으로 구성된 수험생들이 연휴 동안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강좌의 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매일부터 바로 수강할 수 있는 '추석 프리패스'도 함께 선보인다. 수강 기간(20일) 내 5개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며 가격은 10만원이다. 추석 특강을 이용하면 선착순 1천명에게 사과탐 노트와 오답 기출 문제집을 무료로 준다.

마이맥스터디(www.mimacstudy.com)도 17일부터 '추석 단기완성 파이널 기출특강'을 제공하고 있다. 강남 대성학원이 수능을 30일 앞두고 진행하는 현장 파이널 강의와 출제 예상문제 총정리 등을 들을 수 있다.

1318하이(www.1318hi.com)는 취약한 부분만을 단원별로 뽑아서 수강할 수 있는 '초단기 완성 추석 특강'을 22일부터 제공한다. 기존에는 한 개 과목씩 수강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이번 테마특강은 취약한 부분만을 단원별로 뽑아서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중·고생 75% 질병 있다

여중고생·남중생 체중 줄어

비만율 11.62%... 고도 비만 매년 증가

지난해 국내 초·중·고교생 비만율은 11.62%로 고도 비만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생 중 75.62%가 치아, 시력 등 적어도 1개 이상의 건강항목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학년이 높을수록 이상 소견 비율이 증가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많이 일선 교육현장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교육부가 공개한 '초·중·고교생 2006년 신체 발달 상황 및 건강 검진 결과'에 따르면 비만율은 초등생 11.23%, 중학생 11.20%, 고교생 12.81% 등으로 평균 11.62%를 기록, 10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전국 초·중·고 468곳을 표본 추출한 뒤 학생 11만2천191명의 신체 발달 상황 및 3만7천401명의 건강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키는 10년 전보다 2~3cm 커져

국내 초·중·고 학생들 키가 10년 전보다 평균 2~3cm 커졌고 여중생과 여고생, 남중생 몸무게는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의 경우 소폭 줄었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6년도 학생 신체발달 상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키는 10년 전인 1996년에 비해 평균 2~3cm가량 늘어났다.

몸무게는 남자 초등 6학년생이 44.74kg, 여자 초등 6학년생 43.72kg으로 2005년에 비해 0.20kg, 0.14kg 늘어났고 남자 고교 3년생이 68.16kg으로 전년보다 0.06kg 증가했다.

반면 여자 중학 3년생은 52.93kg으로 2005년보다 0.20kg 정도 줄었고 여자 고교 3년생은 55.43kg으로 전년보다 0.66kg 감소했다. 특히 남자 중학 3년생도 몸무게가 60.49kg으로 2005년 60.95kg보다 0.46kg이나 줄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추석 떡식물세트

www.deake.co.kr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판매업자
최저가격을 지켜드리며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 정성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호남지사 **1544-8567**

2만5천원 이상 무료배송